

기쿠치호주도(株式會社 菊地保壽堂) 카로체리아 모노즈쿠리

(1) 기업개요

소재지	山形県山形市銅町2-23-6
설립연도	1604년 창업
분야	차 주전자 등 주물(鑄物)제품 제조 판매
URL	http://www.wazuqu.jp/index.html

(2) 카로체리아 생산방식

세계 자동차경주사상 가장 많은 승리를 획득한 차종이 이탈리아 고성능 경기용 자동차 “페라리”다. 페라리는 “카로체리아(carrozzeria)”라는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생산방식에 의해 제작된다. 카로체리아는 이탈리아의 자동차 공방에서 유래된 말로 지금은 일반적으로 디자인을 비롯해 엔지니어링과 생산 능력을 갖춘 소규모 자동차 회사를 말하는 데 쓰인다.

이와 같은 이탈리아의 카로체리아 생산방식을 도입한 일본의 야마가타(山形)현이 관련된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야마가타(山形) 카로체리아 프로젝트([www.yamagata-carrozzeria.com index.html](http://www.yamagata-carrozzeria.com/index.html))’가 바로 그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야마가타 현의 우수한 장인 기술을 결집시켜 지역주민에게 애용되며 세계에 통용하는 상품을 지역주민 모두가 일체가 되어 개발해 가는 새로운 모노즈쿠리(생산)방식을 말한다. 야마가타 현이 이러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고도성장 사회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성숙사회로 변화하는 일본사회의 움직임에 있었다. 특히 지

금까지 유지해온 모노즈쿠리 방식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둘씩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과연 미래지향적으로 야마가타 현에서 그동안 제조업종의 기업들이 축적한 높은 기술력을 보다 확실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장의 다양성과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높은 기술력의 결집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야마가타 현은 이른바 “카로체리아 식 모노즈쿠리”에 그 해답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품질로 잠재적 수요에 소구하는 상품이라면 가격경쟁과 국제 경쟁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본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와 견고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모노즈쿠리를 가능하게 할 시스템과 네트워크, 인재육성 등의 인프라 정비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야마가타 현은 ‘야마가타 카로체리아 연구회’의 연구사업과 야마가타 상공회의소의 각종 모노즈쿠리 사업을 통해 인프라 기반을 다지는 한편 새로운 시대의 현지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것은 주물(鑄物), 목공, 섬유, 조명 등 총 4개 영역이다. 특히 주물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기쿠치호주도(菊地保壽堂)는 4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일본 주물생산 역사의 산증인이다.

(3) 일본식 카로체리아와 Only-One 기술

기쿠치호주도는 1604년에 창업했다. 이 기업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난위의 주물기술을 전승하면서 각각의 시대에 맞는 제품을 제작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는다. 기쿠치호주도가 제작한 주물제품은 그동안 메이지(明治), 다이쇼(大正), 쇼와(昭和) 3대에 걸쳐 일왕에게 진헌되는 제품으로 선정된 경험도 있다. 또한 미국 독립 150주년 기념으로

열린 세계박람회에서도 그랑프리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일본전통 공예전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는 등 고도의 기술력과 품질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어떻게 하면 기업을 400동안이나 유지하며 발전시킬 수 있을까? 키쿠치호주도가 최근에 구축한 새로운 경영방침을 보면 의외로 간단하게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즉 400년의 역사와 전통을 통해 배양된 독자적인 장인기술을 살려 현대의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그 전략이었다. 특히 이 전략은 앞서 설명한 “야마가타(山形) 카로체리아 방식”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수평적 네트워크형 모노즈쿠리’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 이 생산방식은 야마가타(山形)에 소재한 지역기업 간에 필요한 기술과 인재를 서로 보완하며 완성된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분야의 새로운 디자인 발상과 정보를 장인기술에 접목시켜 제품화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대부분 전체 컨셉을 제안하는 총괄책임자가 전체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책임진다.

이런 방식으로 키쿠치호우도는 적지 않은 제품을 개발했다. 현대적 감각과 고품격을 느낄 수 있다는 극찬을 받고 있는 주물로 제작된 차주전자 “마유(まゆ)”와 “후쿠(ふく)”가 바로 그것이다. 키쿠치호우도가 차주전자를 제조하는 방식과 정신은 일본의 다도(茶道)와도 무관하지 않다. 일본 고유의 복잡하고 다양한 다도의 역사만큼이나 다도구(茶道具)에 쏟는 정열도 심오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마른 목을 축인다는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물을 마셨으며, 더욱 맛있는 음료를 추구하였다. 일본인들은 차라는 맛있는 음료를 마시는 과정에서, 단지 그 맛을 음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모여 차를 달여서 마시는 순서와 차를 접대하는 방식, 다도구의 제작 양식 등을 일정하게 정하고 각 단계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다실을 꾸미고 다도구를 준비하여, 다실에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기는 전체 과정의 양식을 통틀어 다도라 한다. 이는 공통 음식 의례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전통 예능의 한 가지이다. 다도는 차노유(茶の湯)라고도 하며, 다실과 다도구 등의 물질적이 요소, 차를 마시는 방법에 관한 행위적인 요소, 다도에 관련된 미의식이라는 정신적인 요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다도는 이런 요소들을 익히며 세련되게 가꾸어 가며 즐기는 일종의 정신적인 유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마유(まゆ)”와 “후쿠(ふく)”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단순한 타원형이 아니다. 미묘하게 변화하는 복잡한 타원형은 수 백년을 이어온 전통적 기술로만 구현이 가능한 ‘예술적’ 작품으로,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 제품으로 전문가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주물소재는 쉽게 녹슬지 않고 주전자 안쪽을 고온소성법(高温焼成法)으로 제조하는 등 안전하며 강인한 주물 차주전자로 고품질을 실현시켰다. 이 제품은 2006년에 일본 굿디자인(Good Design)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기쿠치호주도 홈페이지 <http://www.wazuqu.jp/index.html>

経済産業省 中小企業庁編(2007), 『元気なモノ作り中小企業300社』